[교수회 입장문]

대학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하여

- 조직 개편에 즈음한 부산대학교 전체 학문과 교육의 균형 발전 제안 -

존경하는 교수님 여러분,

최근 대학 본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정을 비롯한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하고자 다각적인 조직 개편안을 구상하고, 이를 기획위원회, 교수회 평의회, 대학평의원회, 교무회의 등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본부의 고민과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교수회는 이번 조직 개편 논의가 자칫 단기적인 성과 위주에 치우쳐 대학의 뿌리이자 바탕인 기초 및 순수 학문의 토대를 흔들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구의 유수 명문 대학들과 일본의 주요 국립대, 그리고 서울대학교 등 유수의 학문 기관들이 증명하듯, 학문의 깊이와 대학의 진정한 위상은 단과대학 차원에서 보호되는 기초 및 순수 학문의 단단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융합과 실용이 강조되는 시대일수록, 독자적인 깊이를 가진 기초 및 순수 학문의 내실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응용·융합 연구도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합니다. 단과대학 본연의 자율성과 학문적 전문성이 훼손된 채 추진되는 행정 주도적 개편은 대학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장기적인 연구·교육 역량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이에 교수회는 대학 본부의 기획위원회 자료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전체 학문 진흥과 기초학문 토대 강화를 위한 현실적·구체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학문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학문씨앗' 제안의 구체화

교수회가 앞서 전체 교수님들께 제안해 드린 '학문씨앗' 프로젝트는 기초 및 순수 학문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의 학자와 신진 연구자들이 자립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중물이고, 자유롭고 창발적인 환경에서 부산대 교수들이 서로 주목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본부는 소형·기초 연구 과제 및 소외 분야를 포함하여 국내외 선도 학문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 및 공유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문씨앗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와 예산 지원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2. 단과대학 차원의 기초학문 보호 및 자율성 보장

국내외 명문대의 사례처럼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 및 순수 학문 분야가 독립된 단과대학 구조 속에서 고유한 학문적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과대학의 독립적 행정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기획위원회의 조직 개편안 추진 시 단순 효율성 기준에 따른 연구소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기초학문 전공의 고유성과 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수 있는 지원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인문사회과학 및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전담 거버넌스 및 예산 확충

기획위원회 자료에서 다루어진 대학 발전 전략이 공학·기술 및 대형 국책 사업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2015년 설치된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동 위원회에 기초학문 관련 학과 및 단대의 밑으로부터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 전체 예산 배분 시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 및 순수 학문 분야의 연구 인프라 확충, 학술지 간행 지원, 학술대회 개최 및 신진 학자 육성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기초학문 발전기금' 조항을 개편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4. 대학 전체를 살리는 균형 있는 교육·연구 환경 조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형 정부 지원 사업의 성과는 특정 교원이나 단과대학에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부산대학교 전체 구성원의 연구·교육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이자 분수령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와 인프라 개선 혜택이 기초•순수학문과 응용학문 간에 균형 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교원 연구 환경 및 강의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추진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여러분, 그리고 대학 본부 관계자 여러분,

대학의 진정한 경쟁력은 모든 학문이 저마다의 깊이와 가치를 발휘하며 건강한 학문생태계를 이룰 때 비로소 발현됩니다. 교수회는 본부의 조직 개편이 일방적 구조개편이 아닌, 부산대학교의 모든 학문과 교육이 골고루 꽃피울 수 있는 '부산대다운' 장기적 비전을 가진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수회는 본부와 열린 자세로 대화하되, 전체 학문의 진흥과 기초학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11월 3일

부산대학교 교수회